

‘감염 확대 특별기’에 따른 새로운 대책

어제 효고현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32명을 기록했으며, 3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코로나 유입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감염 확대 특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중히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염 확대 특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민을 대상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현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실 때 코로나 감염에 더욱 주의해 주십시오.

[참고] 다시 한번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을! (11월 18일 지사 메시지)

2 숙박 요양 시설을 증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 요양 시설 약 700실을 확보했으며, 감염 확대 특별기에 필요로 하는 숙박 요양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집단 감염과 관련해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사회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PCR 검사 강화

직원과 입소자 중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분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폭넓게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② 사업자분들께서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자의 행동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